

도심 호텔이 아트페어장으로 제주 미술시장의 새로운 현장

아트제주 오는 29일 개막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서 국내외 갤러리 20여곳 참여 컬렉터·제주작가 특별전 선공개 작품 판매에 기대감

제주 도심 호텔 객실이 갤러리로 변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아트제주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롯데호텔, 하얏트리조트 제주를 무대로 했던 아트제주가 올해는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로 장소를 옮겼다.

섬아트제주(대표 강명순) 주최로 이달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호텔 12·16층 객실과 1층 연회장 복도, 로비 등에서 펼쳐지는 아트제주는 '새로운 미술시장,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제주작가

특별전, 제주인 콜렉터, 갤러리 전시 등으로 짜여지는 이번 행사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1000점이 넘는다.

갤러리 전시엔 프랑스, 독일 등 국내외 20여곳이 참여한다. 제주작가 특별전에는 강주현 강태환 김산 최창훈 등이 초청됐다.

제주인 콜렉터전의 주인공은 2010년 서귀포시 이종삼미술관 기획전에서 개인 소장품을 공개했던 문화중재사. 문씨는 47년 전 제주에 정착한 '농부 콜렉터'로 자신의 철학과 취향을 담아 꾸준히 수집한 미술품을 또 한번 선보인다. 아트제주 기간에는 보물로 지정된 고지도 '동여비고'도 전시된다.

주최 측은 세번째 아트페어에 앞서 지난달 '아트제주 콜렉터 그룹'을 출범시켰다. 도내 중견 기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콜렉터 그룹은 메세나 활동의



지난해 아트제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호텔 아트페어인 아트제주가 11월 29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개막한다.

하나로 제주 미술시장과 작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아트제주 연계 행사로 네 차례 진행된 아트세미나에서는 선공개 작품 11점 중에서 7점이 팔리는 성과를 거뒀다. 아트제주 측은 "작년부터 힘써온 콜렉터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미술시장이 변화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며 "아트제주

와 함께 새로운 미술 시장으로 태어나는 제주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아트제주 입장료는 1만원(제주도민 50% 할인). 아트제주 공식 홈페이지(www.artjeju.com)에서 이달 19일까지 사전등록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아트제주' 또는 전화 064)739-337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내 대학에 제주도립예술단은 '좁은 문'

현재 60% 내외 비율이지만 전국공모 속 역전될 가능성 "예술단 지역 할당제 도입을 대학은 인재 양성 노력 동반"

제주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들이 5개 제주도립예술단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현재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원 중에서 음악학부 있는 제주대 졸업자는 56%(38명)이고 제주합창단은 그보

다 약간 높은 60%(29명)이다. 서귀포관악단은 64.2%(34명), 서귀포합창단은 50%(25명)로 집계됐다. 도내 대학 무용학과가 없는 제주도립무용단은 제주출신 비율이 29.5%에 그친다.

전국 공모로 선발하는 도립예술단원 중에서 제주대 졸업자 비율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교향악단의 경우 지난해 7명 모집에 제주대 출신 합격자는 1명이었다. 예술단 설립 초기엔 지역에서 인력을 수급해왔지만 제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국·공립예술단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도내 대학 비율은 머잖아 역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역 대학에서 예비 연주자들의 실력을 키우는 일과 더불어 졸업생들이 도립예술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제주도립예술단 사무국의 관계자는 "제주가 뜨고 있는 곳이고 교향악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사단원 모집 때 각지에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전국 공모이고 법률이나 조례상 특정 지역에 가점을 두거나 비울

을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립예술단도 일정 비율을 도내 대학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주대 음악학부의 관계자는 "한 해 졸업생 중에서 전공별로 1명이라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여긴다"며 "대학 입시나 공공기관 채용 때처럼 지역 인재 할당제를 통해 예술 분야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도 그만큼 유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연주회 때 엑스트라 단원을 쓰는 데 조례상 정원을 늘리면서 도내 대학 졸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문화가짜지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워크숍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다. '창작과 기획'이란 주제 아래 최근 전시·공연의 기획 경향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창작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획의 역할과 고민, 전시·공연기획과 사례, 저작권에 대한 이해, 홍보마케팅 전략, 지원사업 기획서 작성법 등이다. 제주문예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800-9154.

리미티드 필름 워크숍 운영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도민들의 퍼블릭 액세스와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리미티드 필름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5분짜리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영상물을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교육은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오후 8~10시 진행되고 워크숍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홈페이지(www.jejuvc.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click0925@naver.com)이나 전화(064-735-0615)로 신청하면 된다.

문예회관 전시실 정기대관

제주도문화진흥원이 2019년도 문예회관 1-3전시실 정기대관 신청을 받고 있다.

3개 전시실 대관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다. 이 기간에 제주도, 도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전시나 탐라문화제, 제주미술제, 제주도 예술장르별 단체연합전, 전국 단위 공모전 입상작품 제주순회전 등이 있을 경우엔 정기대관일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로 전시목적과 취지가 포함된 전시계획서, 전시 경력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10-7633.

제남도서관, 제주문학을 만나다

제남도서관은 20일 강순복 동화작가를 초대해 '동화 짓기 기초'를 주제로 8차 '제주문학을 만나다'를 운영한다.

제남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매월 세번째 화요일 오후 7시에 '제주문학을 만나다'를 운영하고 있다. 시, 소설, 수필 등 장르별 제주작가를 초청해 지역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제주문학의 모습을 알리고 도민들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지역주민은 장르별 제주문학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주작가들에게는 도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주(11월 19~25일) 무대 & 미술

수능 스트레스 털고 열정을 노래하라

문화진흥원 힙합페스티벌 스윙스·기리보이 등 출연

수능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열정의 노래에 몸을 맡겨보자.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수능 후 기획 공연으로 2018 힙합페스티벌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젊음, 우리의 열정'이란 이름을 달았다. 엠넷의 '쇼미더머니 777'에서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윙스, 기리보이, 키드밀리와 '고등래퍼 I'의 우승자 영비, 베이비론이 출연한다.

<공연>

▶서귀포고 연주회=11월 19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5696-4026.

▶중국어특기예단 공연=11월 19~2019년 1월 31일 세이레아트센터. 1688-4878.

▶제주국제시니어코랄페스티벌=11월 20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8456-7537.

▶연극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11월 21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4604-5019.

▶제주시청합창단 연주회=11월 21일 오후 7시 문예회관. 728-2042.

▶뮤지컬 송과 낭독 공연=11월 21일 오후 7시 동홍아트홀. 760-4685.

▶인형극 '눈먼공과 다람쥐'=11월 22일 오전 10~11시 문예회관. 010-2637-5828.

▶킬리시스코어 연주회=11월 22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5440-0274.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연주회=11월 22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

센터. 728-2777.

▶안덕중음악교사 연주회=11월 23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35-7705.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11월 24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 760-3579.

▶2018 힙합페스티벌=11월 24일 오후 5시 문예회관. 710-7643.

▶극단 가람 '아빠의 소금꽃'=제주연극협회 소극장 축제로 11월 24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 한라아트홀. 010-9687-0031.

▶연극 '우연가동'=11월 24~25일 30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예술공간이오. 010-6713-6545.

▶발레 '호두까기인형'=11월 24일 오후 7시30분, 25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 728-1509.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11월 25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5500-5658.

<전시>

▶남극노인성에 비친 서화전=서귀포예총 주최 11월 21~25일 서귀포예술의전당. 010-2258-0288.

▶100 마이너스 30=박선영 연미한진오 고승욱 작가 참여 11월 22~25일 아트스페이스씨. 010-9114-7910.

▶어머니박물관=11월 22일까지 문화공간 제주아트. 722-6914.

▶남부위드칼라 페스티벌=11월 23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만화작가회 정기전=11월 23-29일 연갤러리. 010-4001-5991.

▶미술등인 집 정기전=11월 24-29일 문예회관. 710-7633.

▶민화에 색을 입히다=11월 24-29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도문화진흥원 힙합페스티벌 출연진. 키드밀리, 기리보이, 스윙스, 영비, 베이비론(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액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액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04100079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